
종합 토론

이창희 _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박진일 _ 국립중앙박물관

김대욱 _ 영남대학교박물관

우병철 _ 영남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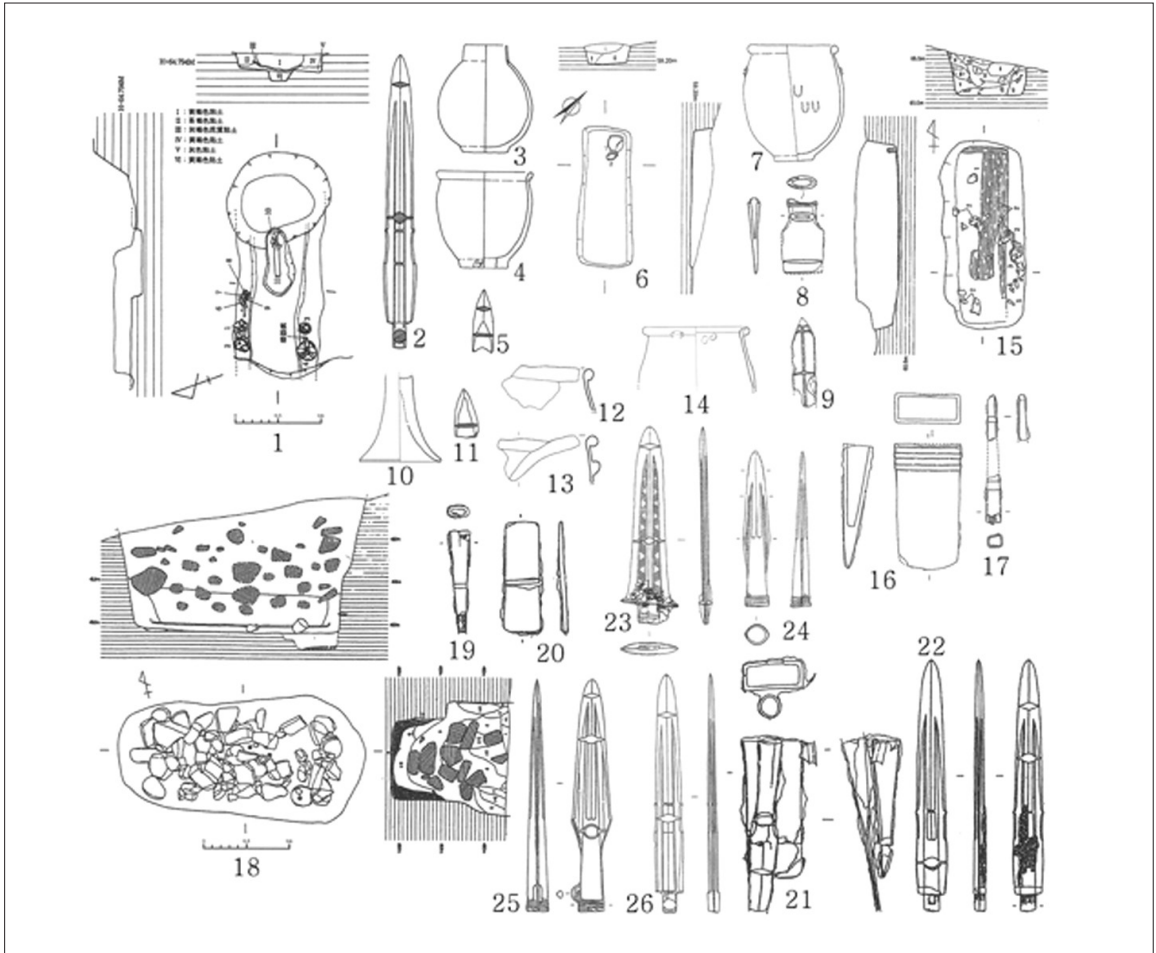
오광섭 _ 울산문화재연구원

허준양 _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산지역의 초기철기 문화’에 대한 토론문

이창희(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이번 학술대회에서 해당 주제가 제1발표로 마련된 이유는 경산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의 고고학적 전개 양상을 개관하고, 나아가 영남지역이나 한반도 내에서 한 지역문화로서의 특징과 위상, 전후 시기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이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표문은 ‘철서(鐵鋤)’ 한 기종에 대한 내용이어서 경산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하기란 여의치 않다. 이에 토론자가 미루어 짐작하여 본래 주제의 내용으로 환기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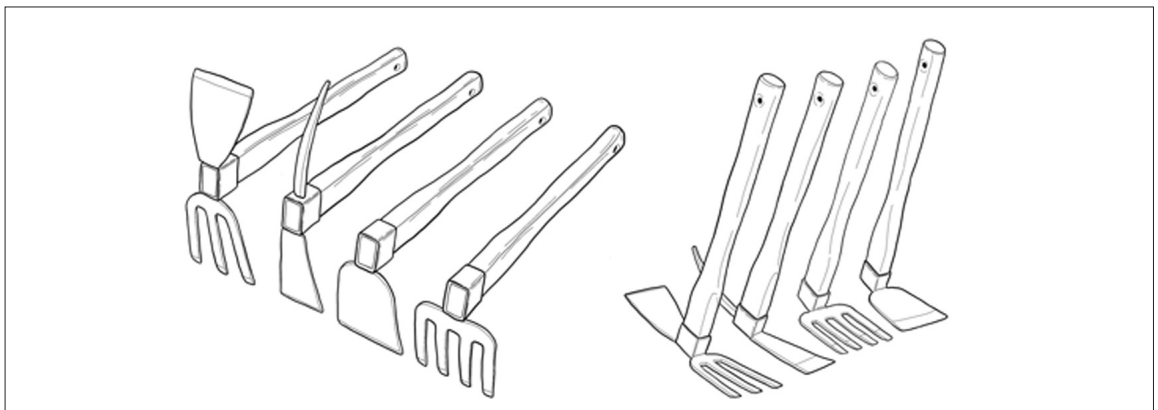
〈그림 1〉 경산·대구지역 초기철기시대 유물군(목관묘=1/80, 토기=1/10, 석기·금속기=1/8) 1~5: 조영 I B-7호, 6·7: 심천리1호, 8·9: 임당F I-42호, 10~13: 연암산, 14: 와촌, 15~17: 임당F II-34호, 18~22: 팔달동45호, 23·24: 同90호, 25·26: 同100호

경산지역(대구 포함)의 초기철기시대¹⁾ 유물상은 <그림1>과 같다. 주지하듯이 호서·호남지역처럼 다뉴조문경 단계의 유물군은 보이지 않고 늦은 단계의 세형동검문화 유물군이 소량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양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며, 다뉴세문경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은 점은 특징적이다. 소위 세죽리-연화보유형 초기철기의 출토 사례도 많지 않다. 경산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초기철기시대의 수장급 분묘는 확인된 바 없는데, 그것이 발굴조사된 유적이 적기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실제로 분묘 조사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와촌, 상동, 월성동, 연암산 등지에서 생활유적의 조사 사례와 지표조사를 통해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취락이 존재했던 것은 틀림없다. 또한 기원전 3~2세기로 볼 수 있는 목관묘와 적석목관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주거 형태와 취락의 경관이 변모하는 시점도 병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아 시대적 변화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 ❶ 세형동검문화의 유물상을 나타내는 초기철기시대 전반기 경산지역의 주민들의 출자 및 청동기시대부터 이어져 온 재지민과의 관계
- ❷ 적석목관묘를 비롯한 2단 굴광 목관묘의 계보와 묘제의 확산 루트

기왕에 철서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이하 철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다. 토론자는 제작 기법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부장품으로서의 의미가 궁금하다. 경산지역 출토 철서는 모두 결실된 부분이 많은 채로 부장되었다. 토론자는 그것이 사용에 의한 파손이나 보존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실패품으로 판단된다.

- ❸ 철서의 기능과 사용법
- ❹ 완형품이 아닌 철서를 부장하는 이유와 농공구의 일종으로서 부장품이 갖는 의미



<그림 1> 서형(鋤形)의 철제농공구 (그림: 이창희)

1) 시대구분론이나 연대론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한국고고학강의』에 표현된 초기철기시대를 전제로 한다. 曰: “연나라 영향으로 주조철기가 유입되어 철기문화가 시작되지만 철소재와 철기의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 “청동기 제작기술이 최고도에 도달하였지만, 청동기시대의 마제석기도 이어짐”, “역사적으로 후기고조선과 위만조선에 걸쳐 있음”.

“경산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 소국 형성과정에 관하여” 토론편

박진일(국립중앙박물관)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점유와 경관을 중요한 근거로 경산 지역의 소국 형성 과정을 살펴, 이전의 무덤 부장품을 중심의 연구 방식을 탈피한 의미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토론자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발표자의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1. 고고학적 견지에서 소국 등장 지표

고고학에 근거한 연구인 이상 당연히 지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고고학적으로 어떤 양상이 확인될 때 이 발표의 핵심 키워드인 ‘소국’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고고학적 관점에서 ‘小國’의 등장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지배자의 무덤입니다. 주변보다 부장품이 월등한 유력 개인묘의 존재를 곧 소국의 등장 증거로 보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환호, 지속적인 목관묘 축조, 규모가 큰 주거지, 유력 개인묘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 모든 요소가 완비될 때 소국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특정 소국의 연속성

앞선 질문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영남의 군집 목관묘에는 주변보다 월등한 부장품을 가지는 유력 개인묘가 있습니다. 창원 다호리 1호, 경주 탑동 1호, 경산 양지리 1호,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 등이 자주 거론됩니다. 대개 성운문경, 일광경, 소명경 등 전한경을 부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기를 전후한 몇 십 년의 부장 시기를 가지는 일군의 전한경을 유력 개인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후속하여 목관묘가 등장하기까지는 전한경의 부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전한경 부장묘와 목관묘 등장 사이의 기간에 있었던 유력 개인은 어떤 지표로 파악해야 하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영남의 군집 목관묘 중 전한경을 비롯한 유력 개인의 상징물을 부장한 무덤이 단발적이며 후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연구자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소국의 연속성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지요?

3.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구분

주지하듯이 초기철기시대는 두 유형(시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기 등장 이전의 괴정동유형이고 두 번째는 철기 등장 이후의 갈동유형입니다. 전자는 비군집(3기 이하) 적석목관묘(적석이 없는 경우도 많음), 한국식동검, 원형점토대토기가 지표이고, 후자는 군집 목관묘(적석이 있는 경우도 있음), 철기(서남한은 주조, 동남한은 단조 중심),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지표입니다. 영남 일대에서 후자는 대구 월성동 목관묘와 경주 하

구리 군집 목관묘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와질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발표자의 이전 글(이성주2015)에서 원삼국시대 등장기의 지표로 ‘지배집단 목관묘의 군집화, 전국식 철기의 유입, 외줄고래의 등장, 무문토기의 와질토기의 변천’을 들고 서기전 100년을 획기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선 세 개의 요소와 와질토기의 등장 시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 지배집단 목관묘의 군집화와 철기는 대구 월성동 목관묘가 가장 이른 시기인데, 완주 갈동 유적과의 시기차를 고려하면 서기전 200년 무렵에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늑도유적을 근거로 한 외줄고래의 등장 시기 역시 비슷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와질토기의 등장은 대개의 연구자가 서기전 1세기(토론자는 후반)로 봅니다. 즉 위의 네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원삼국시대’라면 서기전 100년 무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할 때 대구 월성동 목관묘 전체, 팔달동과 임당유적 중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목관묘는 ‘초기철기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팔달동과 임당 유적 목관묘들의 墓型과 부장품 조합을 살펴보면 서기전 2세기(例: 팔달동 45호, 임당 FⅡ-34호)와 서기전 1세기 목관묘를 다른 관점에서 인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와질토기’의 등장이 획기의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월성동 목관묘가 등장하는 시점인 서기전 2세기 초의 ‘군집 목관묘와 철기부장’이 훨씬 중요한 획기라 생각합니다. 와질토기 등장을 근거로 양자의 문화를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토론자는 발표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구분 방식보다 서기전 2세기(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양상)와 서기전 1세기(와질토기 등장기의 양상)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편(개인적으로는 양자를 모두 원삼국문화라 생각합니다)이 경산뿐만 아니라 영남 일대의 소국 등장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인식 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용례인 ‘초기철기시대’라 이르지 않고 ‘초기 철기시대’라 이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4. 점토대토기 개시기의 매장시설에 대한 평가

경산지역에서 점토대토기 개시기의 매장시설은 목관묘가 아닌 석관묘이며, 경산 대학리 유적의 점토대토기단계에 속하는 석관묘의 입지와 배치가 이전 지석묘 공동체의 의례를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대학리 유적의 석관묘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점토대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무덤으로 보아야 할 당위성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이보다 지석묘와 석관묘를 사용하던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한 점토대토기 사용 집단과의 교류 과정에서 유물 일부가 유입되어 부장한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사례를 김해 지역에서 다수 관찰할 수 있는데요, 한국식동검을 부장한 김해 내동 지석묘와 김해 율하의 석관묘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참고문헌]

이성주, 2015, 『원삼국시대와 와질토기』, 『영남의 고고학』, 226~227쪽, 사회평론

‘경산 양지리 유적 발굴성과’에 대한 토론문

김대욱(영남대학교박물관)

경산 양지리유적은 2017년 발굴 당시에도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여러 차례 언론이나 세미나를 통해 유적에 대한 소개¹⁾가 있었으며 또 발굴보고서²⁾와 특별전³⁾ 등을 통해서도 그 발굴 성과가 공개되었다. 최근에는 이곳 경산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주요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오늘 발표한 박기혁 선생님은 당시 발굴현장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 집필까지 직접 진행하셨던 것으로 안다. 따라서 아주 상세하고 현장감 넘치는 발표를 볼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발굴성과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으나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유적 발굴과 관련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쭙 보고자 한다.

1. 발표자는 경산 양지리 유적의 자연지리적 입지를 설명하면서 선사 및 원사시대 취락이 입지하기 좋은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사실 이 유적을 비롯한 영천, 경산,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 일대는 크고 작은 하천을 끼고 넓은 충적지와 농경지, 낮은 산지를 갖춘 지형이 많은 편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 이 금호강 일대는 선사~고대 유적과 유물이 그 어떤 지역보다 많이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양지리 유적 특히 오늘 주로 논의되고 있는 탁월한 유물이 부장된 목관묘와 관련하여, 이 양지리 목관묘가 축조되는 것이 자연지리적 입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가? 또한 금호강 주변의 다른 목관묘 축조 입지(영천 용전리나 어은동유적, 경산 임당동과 신대리 유적, 대구 만촌동·팔달동·신천동·학정동·평리동유적 등)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2. 발표자께서는 1호 목관묘의 축조 양상과 축조 공정에 따른 유물 출토양상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다. 아마 이러한 축조 공정마다 특별한 제의를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하며 이는 발표자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고찰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전반적인 축조 공정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 축조 공정마다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 각각 의미를 부여하거나 각 단계마다 부장되는 유물의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호 목관묘에서는 인골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상태는 어떠했으며 인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피장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장벽 서쪽부 충전토 상면에서 출토된 단경호 내부에서 송어 머리뼈, 복숭아, 참외 등의 음식물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장양상이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한

1) 김동숙·박기혁, 2019, 「경산 양지리유적 목관묘 발굴조사 성과」목관묘로 본 사료국의 형성과 전개 1. 유적 사례 발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 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경산 하양(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경산 양지리 유적」

3) 국립대구박물관 외, 2020, 「떴다! 지배자-새로 찾은 이천 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2020 국립대구박물관 테마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1호 목관묘와 2호 적석목관묘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즉 1호 목관묘는 통나무 목관을 사용한 전형적 형태의 목관묘로, 2호 적석목관묘는 판재식 목관에 적석을 하고 목관 상면에 3조의 횡대를 설치하였는데 이 두 목관묘의 축조 방법이 아주 대조적이다. 발표자는 그 축조 연대에 대해서도 전자는 기원전 1세기 전반, 후자는 기원후 1세기 전반으로 보았으므로 약 100년 정도의 시차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목관묘의 상관관계나 피장자의 관계, 계층차, 유물 부장양상 등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지리유적을 통해 본 경산지역 목관묘 축조양상과 특징」에 대한 토론편

우병철(영남문화재연구원)

기왕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한반도 동남부지역 목관묘의 구조와 축조양상에 대한 연구는 대구 팔달동유적, 경산 입당동유적, 경주 조양동유적, 창원 다호리유적의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울산 교동유적이나 이번 경산 양지리유적과 기존 연구 성과와 더불어 이 시기 분묘유적 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양호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향후 이 시기 분묘의 전체 양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발표자는 경산 양지리유적 목관묘의 구체적인 구조 분석을 토대로 창원 다호리유적, 대구 팔달동유적, 경산 입당동유적 등 기왕에 알려져 있었던 주요 목관묘의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한반도 동남부지역 목관묘의 전체 양상에서 경산 양지리유적 목관묘에서 보이는 상사성과 상이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양지리유적 목관묘의 상이성을 부각하여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발표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거시적 측면에서 양지리유적 목관묘의 전체 분포양상으로 보아 공간 배치상 단독묘가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미시적으로 양지리 1호 및 2호 목관묘의 구조분석과 운구용관의 사용여부, 棺床개념의 적용, 목관 내부의 二中隔壁 구조, 목관 덮개의 존부문제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대체로 발표자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한다.

1. 발표문의 순서에 따라 경산 양지리 2호 목관묘의 구조와 계통에 대해 질의를 드린다. 발표자는 양지리 2호 목관묘의 구조를 대구 팔달동유적과 경주 조양동유적의 적석목관묘와 비교하면서 양지리 2호 목관묘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양지리 2호의 무덤 내에 형성된 이중굴광의 요소는 상위 적석을 하는 적석목관묘 중 대구 팔달동 45호와 경주 조양동 5호 적석목관묘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적석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대해서는 큰 차이성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팔달동 45호와 조양동 5호의 상부 적석 위치는 지표면에 형성된 묘광의 굴광선에 목개가 설치된 후 적석이 이루어 졌다면, 양지리 2호의 경우에는 무덤 내부의 이중굴광선에 목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적석이 이루어진 점이다. 발표자의 의견대로 양지리 2호는 무덤 내부에 상부적석을 하는 독특한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 성과에 의하면, 이중굴광의 어깨면에 횡방향으로 각각 3개 총 6개의 구덩이를 굴착하여 2조의 구덩이를 연결하는 횡대를 설치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무덤 내부의 이중굴광의 어깨면에 상부적석도 독특한 양상이지만 어깨면에 횡대 설치를 위한 수혈 굴착 시설도 기왕의 목관묘 구조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시설도 무덤 내부의 적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2. 앞의 무덤 내부의 상부적석과 관련한 계통의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린다. 발표자는 양지리 2호 무덤 내부의 상부적석을 보성 동천리, 창원 덕천리유적 등 이전 시기의 청동기시대 지석묘 하부구조에서 그 계통과 이어

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기왕의 묘제에서 하부구조의 전통을 잘 정리한 발표자의 의견에 의하면, 한반도 서남부지역은 청동기시대 석관묘- 초기철기시대 순수목관묘와 적석목관묘의 혼재, 동남부지역은 청동기시대 석관묘- 초기철기시대 순수목관묘 - 적석목관묘와 순수목관묘 혼재 - 원삼국시대 순수목관묘의 순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동남부지역의 경우, 대구 팔달동유적과 경주 조양도유적의 지표면 상부 적석은 한반도 서남부지역 적석목관묘의 영향으로, 경산 양지리 2호 무덤 내부의 적석은 보성 동천리, 창원 덕천리유적 등의 청동기시대 지석묘 하부구조의 재지적 전통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발표자는 기왕의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순수목관묘는 ‘외래계’로, 적석목관묘의 시설 중에 상부 적석 부분은 ‘재지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앞 시기의 청동기시대의 무덤이 대부분 石을 주 재료로 하여 축조하기 때문이며, 어느 정도 상관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石을 이용하는 것이 모두 ‘재지계’로 보는 인식은 동북아시아의 거시적 측면에서 숙고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먼저 발표자는 ‘재지계’의 공간적 범위를 어느 정도로 염두하고 있는가를 먼저 질의 하고자 한다.

그리고 몽골의 흥노 무덤을 보더라도 지표면 상부적석, 무덤 내부의 다중굴광 어깨면에 상부적석, 양지리 1호 과 같은 통나무목관 등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무덤 구조와 유사한 형태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흥노는 기원전 4~2세기에 중국의 한나라에 조공을 받을 정도로 융성하였으며, 한반도 북부지역은 흥노와 중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의 묘제는 중국의 순수목관묘만 ‘외래계’로 보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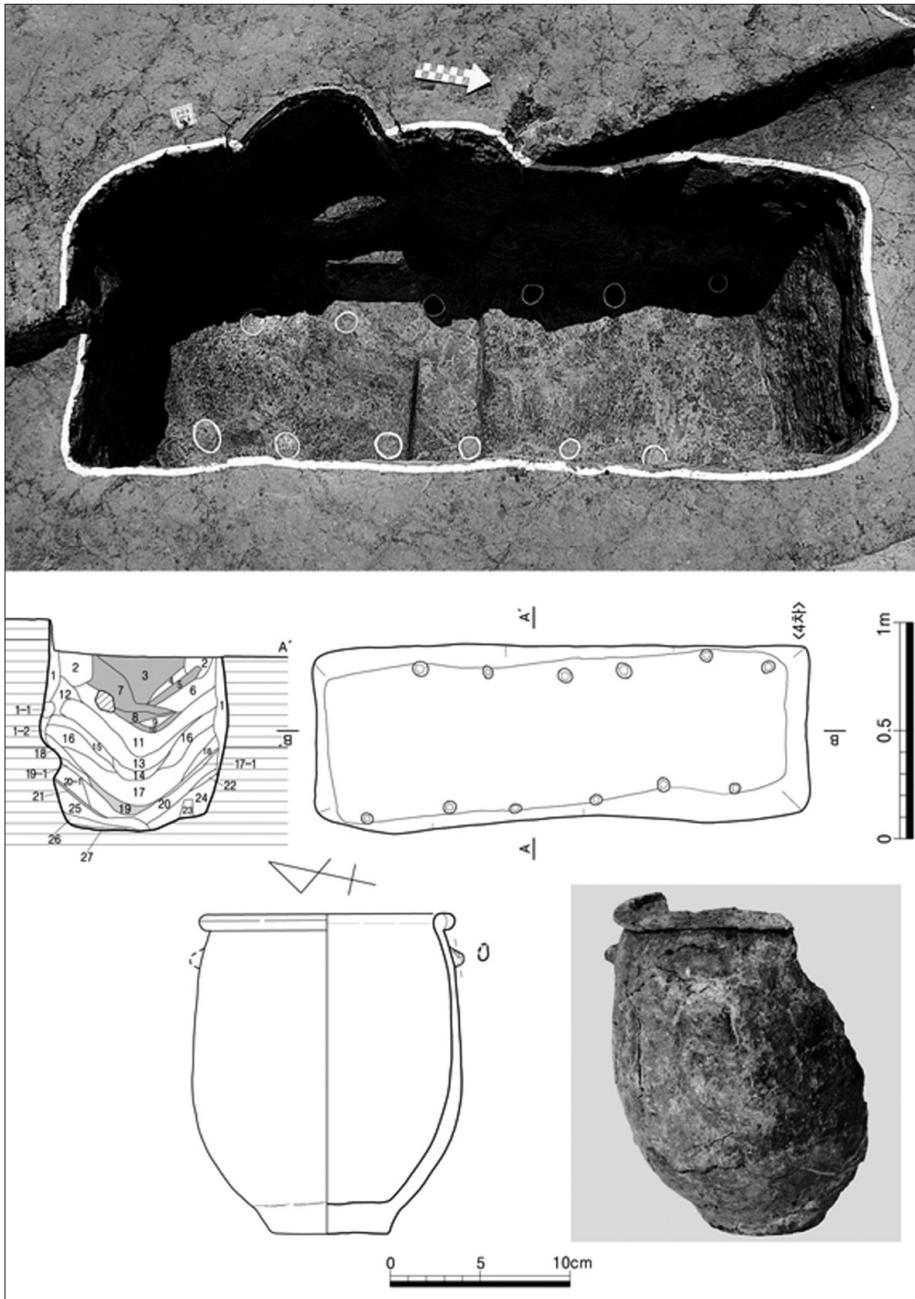
3. 이어서 양지리 1호 목관묘의 구조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한다. 발표자는 구유형 목관 하부에 위치한 점토층을 日本 黒塚古墳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던 목관을 안정적으로 받치는 기능을 한 ‘棺床’으로 보았다. 日本 黒塚古墳는 시기적으로 기원후 3세기대로 양지리 1호 목관묘와는 수백년의 차이가 있지만 순수하게 형태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구유형 목관을 고정시키는 장치로는 창원 다호리1호의 뼈기와 그 穴이 잘 알려져 있다. 양지리 1호와 다호리 1호처럼 다수의 주요 유물이 제의의 프로세스에서 제 위치에 놓기 위해서는 관을 고정시키는 것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 양지리 1호 외 다른 목관묘에서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구유형 목관의 고정과 관련하여 경산 중산동유적 C구역 1호 목관묘에서도 타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위치에 뼈기 穴이 확인되었다(참고1 참조).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목관묘의 ‘棺床’의 의미에 대하여 그 범주를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4. 양지리 1호 목관묘의 구조 중 ‘中隔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견해와 같이 이중격벽 보다는 가장자리 단축의 관 마감재로 보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자의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 발표자 의견의 타당성을 차지하더라도 길이 이중격벽을 설치하여 10cm 내의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발표자는 조사 성과에서는 관의 뚜껑(관개)으로 보는 의견과 달리 묘광의 뚜껑(광개-목개?)으로 보고 있다. 조사 성과와는 큰 이견인데, 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발표자의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모르겠으며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타 유적에서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관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매장례상 어떤 의미로 보는가?



〈참고 1〉 경산 중산동유적 C구역 1호 목관묘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에 보이는 제작기술’에 대한 토론문

오광섭(울산문화재연구원)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2의 습베 끝단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함께 용전리 목관묘 출토 청동 잔존물 등을 실마리로 동검의 주조 과정 및 그 거푸집 상단에 깔대기와 같은 기물의 존재를 추정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그 해석에 대해 부연 설명을 묻고, 일부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검의 습베 쪽에 탕구와 함께 배치되는 토제 깔대기 내에 주입구와 가스배출구가 분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는 논지 전개와 함께 관련 주조기법이 동검의 전장과 경부 길이 간의 상관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듯 한 해석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발표에 대한 다섯가지 질문과 의견입니다.

첫째, 주입구와 가스배출구 그리고 청동찌꺼기의 좌우분할선을 근거로, 3개체의 깔대기 조합을 상정하셨는데요. 거푸집의 합범선과 같은 가로 방향으로 분할한 2개체의 깔대기 조합이 제작에 더욱 용이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가로 분할시 토제 깔대기 제작에 있어, 좌우 대칭이 되는 모범과 같은 요철면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정인성은 경부 하단부의 축약현상을 설명하면서, 토제 깔대기와 함께 주물사의 사용을 언급하였고, 거푸집과 달리 토제 깔대기 내의 축약 주조 부위(얇게 처리된 탕구와 동검의 연결 부위)에서는 좌우분할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2012, 『細形銅劍의 湯口 處理法』, 『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 연구발표개요집』 6호, p.13.). 이를 근거로, 여러 개체의 조합 형태로 깔대기를 만들지 않고, 청동찌꺼기의 좌우분할선에도 매이지 않는다면, 주물사를 깔대기 형태로 가두어 다진 후에 주입구와 가스배출구를 뚫는 것이 토제 깔대기의 제작상 보다 용이하고 주조작업도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아래 사진 참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토제 깔대기를 3개체로 조합할 경우, 주조시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개체의 토제 깔대기가 어떤 방법으로 조합이 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개체간 결속 그리고 틈을 메우는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넷째, 거푸집에 가스배출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면 가스배출구는 필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인식됩니다. 실제 주조 작업이 순식간에 진행되고, 거푸집의 밀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 배출구의 기능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동검은 아니지만, 교동리 1호 출토 동모의 엑스선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포의 이동은 예열이 충분치 않은 이유로 발생하는 탕구 반대편 수축현상과 완전히 밀봉되지 않은 합범선을 따라 이루어

지는 배기현상으로 나타납니다(아래 도면 참조). 반면 중력 반대방향으로의 기포 이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추정으로 특히 내형 없이 주조된 동검 습베 쪽의 가스배출구 존재가 언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검 거푸집에서 모두 봉부 쪽에서 관찰되는 가스배출구의 목적이 실제 간접적인 용도에 더 비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강암 거푸집은 주조실험 시 5회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오광섭, 2013). 당연히 사용횟수에 비례해 내부 마모와 외부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험에서 가스배출구와 거푸집의 내구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했지만, 동검의 주조불량 방지 못지 않게 거푸집의 내구성 연장이 가스배출의 실제 더 중요한 효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론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거푸집은 주조시 고열로 터지거나 용탕이 굳어지는 시간차에 따른 수축현상으로 인한 이완으로 내구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조불량은 가스배출이 원활하지 않는 것 외에 예열이 충분치 않아서도 발생하는 수축현상으로 야기되기도 합니다. 거푸집은 석질의 열화가 발생하는 만큼, 수축현상이 발생하는 봉부쪽에 위치한 가스배출구와 거푸집의 열화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반론을 제기해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입구와 근접한 가스배출구가 내형이 있는 청동주조의 계보를 채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습니다.

다섯째, 동검의 습베 쪽에 탕구와 함께 배치되는 추정 깔대기가 편년의 자료가 되며, 시기적으로 후행하는 요소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술계보와 기술적인 이점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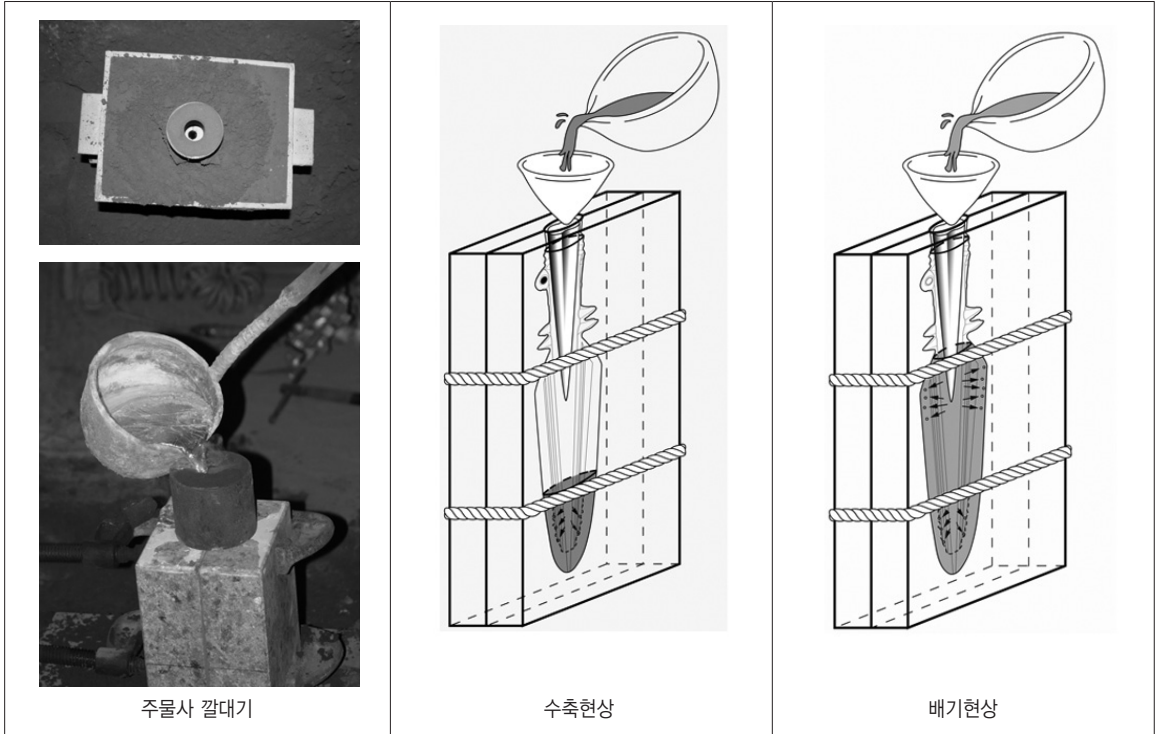
여섯째, 유물을 실견 후, 양지리에서 출토된 동검 3점이 같은 공인집단에서 만들었다는 전제하에 각 경부(습베)의 길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1호 목관의 동검1은 1.9cm, 동검2는 2.2cm 그리고 2호 목관의 동검은 2.0cm로, 2.0cm 내외의 경부가 검파에 삽입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삽입되는 부분이라 원하는 제원을 충족하면 검신과 같이 마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호 동검1의 경부는 2.0cm 이상이 주조되어 1.9cm 지점에서 깔끔히 필요 없는 부분을 절단하여 마무리 한 것으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1호 동검2의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주조되어서 끊어냈다가 보다는 원하는 마감선 언저리까지 용탕이 부어지고 거칠게 마무리된 양상을 보입니다. 주조 마감시 용탕의 고상화가 진행되면서 깔대기를 통해서 흘러들어간 용탕이 가운데가 음푹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많이 흘러내려 굳어져 발표자께서 반달모양으로 크게 부러진 부분이라 표현하신 부분은 쪼듯이 인위적으로 박리를 시켜 2.2cm의 길이 즈음에 맞추었다고 보이고, 점상으로 부러져 가스배출구로 주장하신 부분은 용범선을 따라 적게 머금듯 흘러내린 용탕이 표면장력으로 굳어 오목하게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2호 동검을 보면, 거친 주조 마감에 대한 확신이 더욱 듭니다. 2.0cm 길이로 경부 주조를 마무리 하였는데, 합범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덜 채워지고 나머지 한쪽은 기준까지 채워진 양상을 보입니다. 이 역시 고상화되는 용탕이 합범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원하는 지점까지 채워지고 나머지 한쪽 다소 모자라게 채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파에 삽입되어 결속의 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기에 별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주장하시는 1호 동검2 경부 마감을 고상화되는 용탕의 거친 마감으로 재고할 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주조되어 제거가 필요한 부분을 쪼아서 강제 박리시켰다고 볼 수는 없는지요?

울산 교동리 유적 1호 목관모 출토 동검 주조 실험 및 동모 주조 모식



토론문: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양지리 유물

허준양(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양지리 칠기에 대한 이제현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는 중국과 일본의 칠기에 대해 개괄하고, 한국 칠기의 출현 시점을 논하였습니다. 또한 고대 한국 옷칠 문화의 형성과 흐름, 그리고 경산 양지리 유적 출토 칠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발표문의 곳곳에 언급된 흥미로운 내용은 기왕의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라 주목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번 발표는 이전 논고와 흡사한 부분이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아 보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칠기는 한국고고학에서 접하기 어려운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칠기의 출토 수량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발굴 현장에서 노출 문제, 보존처리 과정과 보관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가 필요한 고고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자인 저도 칠기를 접할 기회가 적어 이번 토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1.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의 옷칠은 중국의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고, 한국은 청동기~초기철기시대에 일부, 원삼국시대에 상당수 출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료는 시대에 따라 그 계통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칠기의 기술적 계보 또는 생산을 지식묘 출토품에서 목관묘 출토품까지 구분해서 중국의 전국계, 한(낙랑)계 등과 연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 내에서 동일 계통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한국 칠기문화의 흐름과 범위와도 관련되어 매우 주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위와 연계해서 한국의 옷칠 자료가 검토에서 확인되는 점을 주목하여 심양 정가와자, 본계 유가초, 집안 오도령구문 유적 등의 출토품과 관련성을 짚었습니다. 본문에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초기철기시대에 검토 또는 옷칠 자료가 미미한 점은 이들과의 연속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발표자는 영남지역과 서북한지역의 칠기 자료를 비교하면서 상호 관련성을 부장품의 차이로 구분하고, 오히려 낙랑의 칠기는 삼국시대부터 확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양 지역에서 출토되는 동일품 또는 주요 제품의 부재 등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과도 연결되는 해석인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칠반(漆盤)에 시문된 '촉군서공(蜀郡西工)'의 명문이 중국 四川省 成都의 官營工房으로 살피 묘제와 칠기, 동경과 함께 기술자가 한반도로 들어온 해석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村上 恭通 2020). 이

러한 점은 철기의 생산은 동북아시아의 유통과도 관련되는 연구로 볼 수 있는데, 영남지역 철기의 전파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4. 경산 양지리 유적 출토 철기를 검토하면서 동묘의 초를 ‘비파형동묘초’로 언급하였습니다. 비파형동묘초는 앞선 비파형동검의 초를 염두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미 기물의 형태를 적용한 ‘검신형검초’가 통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모신형묘초’ 또는 ‘모신+검파형묘초’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인 사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신형과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목관묘에 부장되지 않는 ‘비파형○○’의 용어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5. 오늘 발표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철기와 관련된 주요 논점은 제작기법입니다. 이미 생철 접착법(李健茂 1995), 목심내뿔 실납법(정인성 2013), 평탈기법(崔鍾圭 2021) 등 다양한 제작기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종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자는 경산 양지리 1호묘의 동묘초, 울산 교동리 1호묘의 동검초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중 후자는 부속구의 조립방식 또는 마감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는 발표에서 언급한 비파형동검초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양자의 제작기법 등에 대한 발표자의 다양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림 1〉 영남지역의 철기초 2례(필자 촬영)

李健茂, 1995, 「韓國式銅劍의 組立式 構造에 대하여」, 『考古學誌』7.

정인성, 2013, 「細形銅劍 附屬具의 製作技法과 韓國式 靑銅器」, 『연구발표자료집』7, 아시아주조기술학회.

이제현·장용준, 2020, 「삼한시대 영남지역의 철기」, 『삼한의 신앙과 의례』, 국립김해박물관.

村上 恭通, 2020, 「동아시아 세계의 철기문화 연구와 지역재생 사업으로의 활용」, 『해외 석학 초청 온라인강연회』,

2020년도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고고학전공(ACHI Lab.), 영남대학교.

崔鍾圭, 2021, 「慶山 陽地里 출토 平脫戈鞘에 대한 淺見」, 『考古學探究』24.

제1회 경산시립박물관 학술대회

경산지역 청동기~원삼국시대 문화 전개양상

— 양지리유적을 중심으로 —

발행 | 경산시립박물관 · 한국청동기학회

발행일 | 2022년 5월 20일

인쇄처 | 블루애드컴 T. 053. 256. 9415